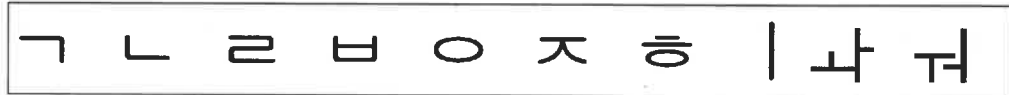


다음 낱글자를 이용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글자를 만드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겹모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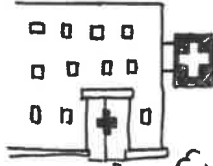


◆ 각각의 자음 옆에 겹모음 ‘나’를 써보세요. 그리고 음절표를 읽어 보세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	---	---	---	---	---

◆ 각각의 자음 옆에 겹모음 ‘ㄴㅏ’를 써보세요. 그리고 음절표를 읽어 보세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	---	---	---	---	---

◆ 모음 ‘ㅏ’가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그림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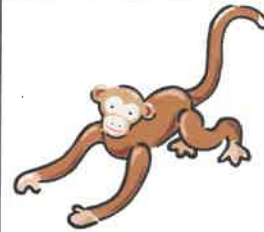
		
		
태권도, 병원, 동물원, 더워서, 추워서		

와/워가 들어가는 단어
글자를 찾아 그림 밑에 써 보세요.













사과, 동화, 장화, 전화, 무궁화

소화기, 과자, 샤워, 시원해, 병원,

망원경. 원숭이, 동물원, 아름다워



◆ 모음 ‘나’ 가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그림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장화, 전화기, 동화책, 영화관, 화요일, 무궁화, 사과, 왕자, 과일, 소방관, 왕관, 경찰관

와 / 과

(보기)

와	과
철수와 영준 어머니와 아버지 학교와 집	준혁과 영준 선생님과 아버지 식당과 집

◆어울리는 글자에 ○ 하고, 아래에 맞게 써 보세요.

1. 원숭이가 바나나(와 , 과) 꺾을 먹고 있어요.

☞ 원숭이가 _____ 을 먹고 있어요.

2. 원숭이가 꺾(와, 과) 바나나를 먹고 있어요.

☞ 원숭이가 _____ 를 먹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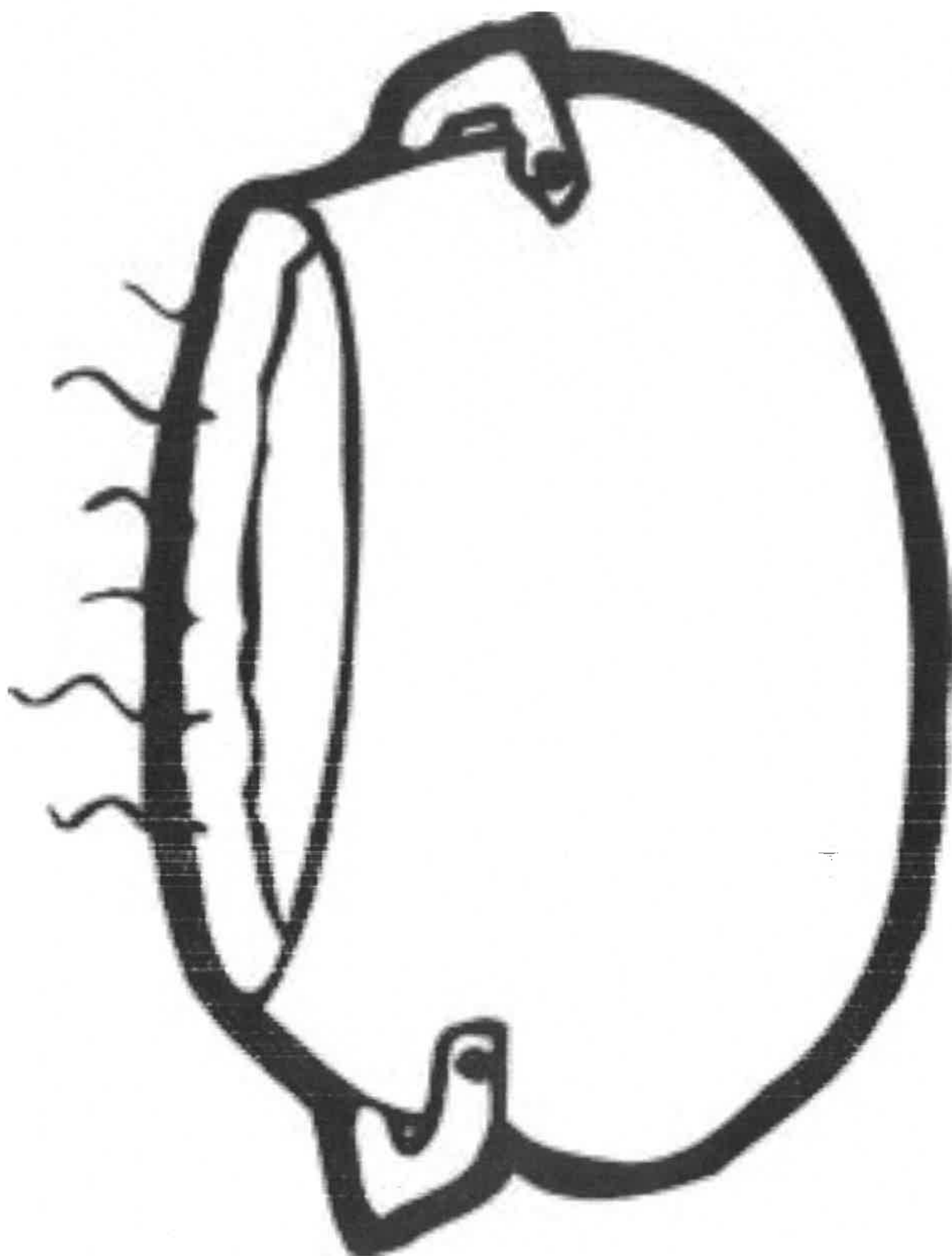
◆다음 두 단어를 와/과 를 사용하여 연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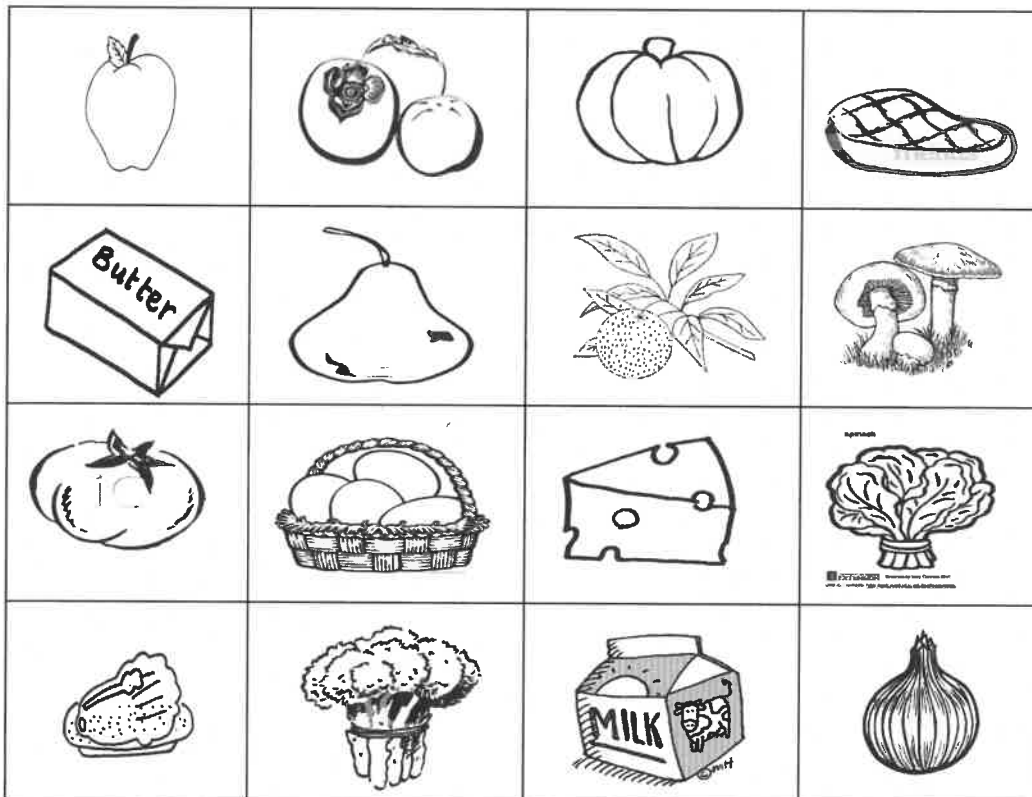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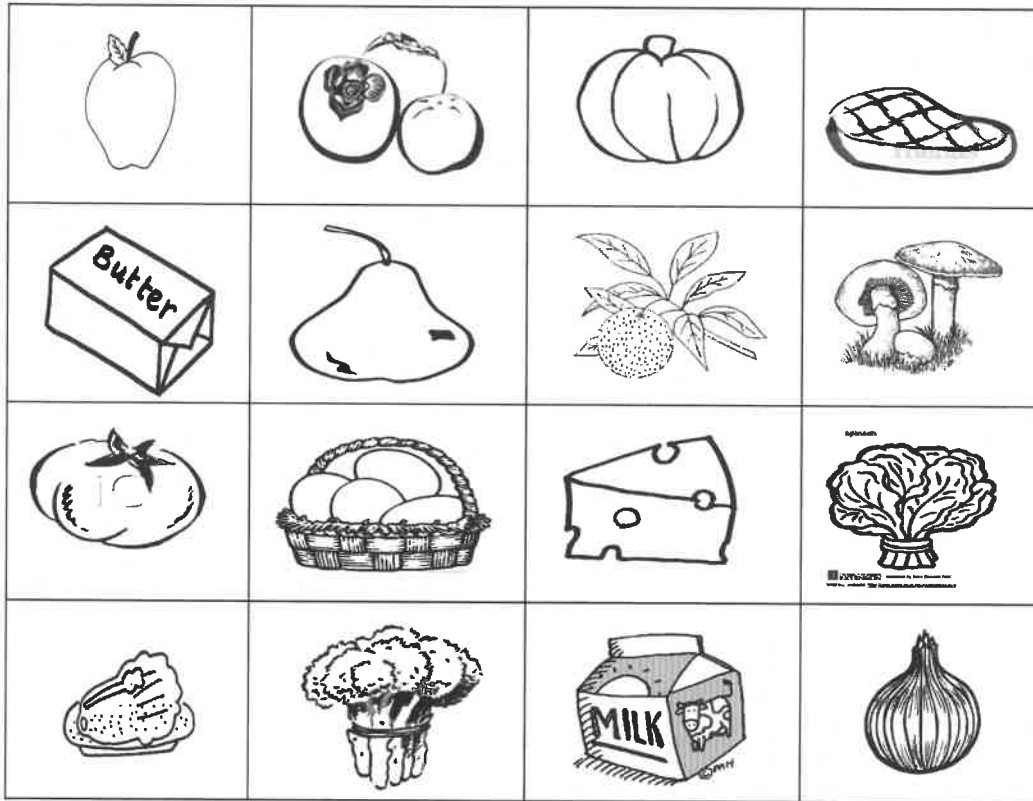
1. 사과 딸기 ☞ _____

2. 꿀 설탕 ☞ _____

3. 사자 호랑이 ☞ _____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아이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곳에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고 날씨도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춥고 배가 고프다.”
 아이는 땅에 주저 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 앞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애야, 울지마라. 내가 이 요술 냄비를 줄 테니 가져가서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수프를 먹으며 지내렴.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한단다. 이
 요술 냄비는 넣고 싶은 재료를 말 할 때 꼭 ‘와’ 와 ‘과’를 정확히
 말해줘야 한단다.”
 “요술 냄비야, 사과와 당근과 고기를 넣은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 주렴.”
 이렇게 말이다. 그렇게 여우가 말하자 마자 맛있는 수프가 요술
 냄비에서 나왔어요.
 맛있는 수프를 먹고 배가 불러진 아이는 요술 냄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도 맛있는 수프를 드리고 요술 냄비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루는 아이가 밖에 나가고 집에 할머니 혼자 계셨어요. 할머니는 요술
 냄비에게 재료를 말 할 때 ‘와’와 ‘과’를 넣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말았어요.
 배가 고파진 할머니께서 “요술 냄비야, 고기랑 당근이 들어간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 주렴” 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요술 냄비에서는 아무
 음식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이 요술 냄비가 이젠 고장이 났나보다. 아무 음식도 나오지가
 않아...”
 아이가 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요술 냄비야, 당근과 고기가 들어간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 주렴.” 그러자 맛있는 수프가 요술 냄비에서
 나왔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꼭 재료를 말 할 때 ‘와’ 와 ‘과’를 정확히 말해줘야 해요.”
 아이와 할머니는 맛있는 수프를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호박 ☐

양파

버섯 ☐

우유

사과 ☐

감

고기 ☐

배추

치즈 ☐

버터

계란 ☐

브로컬리

굴 ☐

배

토마토 ☐

시금치